공산중국 창시한 偉人의 산실

독자기고 —중국 천진의 남개대학과 주은래

중국의 천진은 한국과 지리적이나 역사적으로 매우 가깝고 중요한 지역임 뿐만 아니라 한·중 수교 이후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지역 중의 한 곳이다. 이 도시에 있는 남개대학은 모택동(1893~1976)과 함께 공산중국의 창건자이며 죽음 때 까지 국무원 총리였던 주은래(1898~1976)의 모교이며 경희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Ⅰ. 남개대학

북경 상해와 함께 중국의 3대 직할시인 천진시에 자리 잡은 남개대학은 1백20헥타의 면적으로 1919년에 장백령이 설립하였다. 당시 문과·이과·상과만 설치되었다. 이후 문학원·이학원·상학원으로 바뀌었다.

중일전쟁 중 일본의 침략으로 북경대학·청화대학과 함께 호남성 장사로 옮겨 장사임시대학, 다시 곤명으로 이전하여 서남연합대학으로 성립되었다(1937). 이때에 사람에서 국민으로 바뀌었다. 그 후 천진으로 돌아와(1946). 문학원·이학원·공학원·정치경제학원으로 편성되어 16개학과가 성립되었으나 1952년 학과를 조정하여 문·이과의 종합대학으로 되었다.

현재 국가의 중점대학으로 22개학과에 54개 전공부야가 설치되었고, 17개 연구소가 있다. 그리고 1만여명의 학부학생과 연구생(대학원생)이 2천여명이 있고, 교수 213명, 부교수 650명 등이 있다. 기초과학과 전공과목이 1천4백여 강좌가 설치되었고, 박사와 석사생의 전공강좌가 9백60여과목, 2백30여만권의 장서와 90여개의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남개대학은 문리·상과를 중심으로 설립된 학교이므로 역사·화학·물리·수학·경제가 주된 학문적 범위로 세계 66개 대학과 자매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희대와는 지난해에 자매 결연했는데, 양교의 학생·교수의 인적 교류 활성화와 교환수업 및 양교 학위제도가 가능하게 된다.

Ⅱ. 주은래와 남개대학

주은래는 강소성 회계인으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백부집에서 자랐는데 심양모범학교를 다녔다. 1913년 15세에 천진의 남개중학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서양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주은래는 특히 중문학과 구미소설 등 문학과 역사·정치·신문잡지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이후 일본에 유학하여 마르크스주의 등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으며, 중국내의 군벌들의 부정과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압제된 중국을 구하기 위해 귀국하여 남개대학에 입학(1919)한 후 뒤에 그의 부인이 된 등영초 등과 함께 적극적인 학생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체포 및 옥중생활 후 근로장학생으로 프랑스에 유학하여 이임삼·동소평·진의 등을 만나고 마르크스사상 학습과 부생활 위해 사회주의 청년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21년 상해에 중국공산당이 창립되자 중국공산당 파리지부를 설치하고 주덕과도 만나게 되었다.

주은래는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으로 귀국하여 손문이 세운 광동의 혁명정부에 가담하여 공산당 광동성 위원회의 서기가 되었다가 장개석이 세운 황포군관학교 정치부주임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러나 공산당원의 숙청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후, 다시 장개석의 북벌로 인해 상해의 포팅스조계로 잠입하였지만 여의치 않자 부스주교의 집을 이용할 수 있던 무한에서 공산당 중앙위 군사부장이 되었다.

1934년부터 시작된 장정으로 진득수·이임삼·구추백 등과의 노선투쟁을 통해 1935년 준의회의에서 실권을 장악한 모택동의 뭉지로서 그는 활동하게 된다. 1936년 서안사건이후 국공합작과 중일전쟁 동에서 공산당 대표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다가 1949년 공산당 정권이 성립되자 국민당 요원의 영입과 함께 국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활약을 하였다. 이후 유소기·임표의 권력투쟁 역시 (1978. 3). 이곳은 주은래가 1913년부터 1920년까지 주로 젊은 시절을 보낸 남개의 활동을 담았는데, 2층으로 된 건물에 4개의 전열실로 나뉘어 주로 사진과 문헌자료 200여점이 진열되어 있다.

제1실은 남개중학시대(1913.8—1917. 6)이다. 주은래는 글쓰기를 좋아하였고, 국은성적이 제일 우수하였지만 영어에서는 등록에서 학습하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력한 결과 영어연설회를 조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단체의 조직에서도 정력적인 활동을 하였는데, 전교생·반교생의 10여개 조직에서 활동하였다. 각종 학설을 연구하고 교육과 도덕을 함양하기 위한 경업균학회(敬業群樂會)에서 활동하여 회장이 되었고, '경업(敬業)'(1914년 창간, 반년간)의 주편을 맡아 문장을 쓰고 연설·연극으로 조직연습을 하게 되었다. 이는 이후 1년간에 학생회 조직이 20여개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창간한 전교성 간행물인 '교풍(校風)'(1915년 창간)을 편집하여 '논맹예(論孟學)'와 '성능동물론(誠能動物論)' '본사시폐임관(本社之責任觀)'등 여러편의 문장을 발표하였다. 이때 부터 여러개의 필명으로 발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주은래는 신연극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입학 후 경업균학회에 신극단을 설립(1914. 11)하여 '사원혼(思怨線)' '일원록(一元錄)' '화용이다. 1920년 7월에 학교를 떠나 11월에 프랑스로 가서 1924년까지 머물렀다. 천진의 '익세보(益世報)'특파원으로 활약하면서 방구통신(放歐通信)으로 영국의 탄광 노동자의 파업과 북양정부가 독일로부터 차관하는데 대한 부당성, 영국의 경제조사와 공인운동의 고찰등을 알렸으며, 독일에서는 구주공산주의 운동의 상황 등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그리고 소년중국공산당을 조직하여 '소년(少年)'(후에 '적광(赤光)')을 편집하여 10월 혁명과 공산주의 전파와 군벌 통치 및 열강들의 침략을 보도하였고, 공산당 파리통신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광주·심북·무한·중경에서의 간고한 세월 속에서 천하대세의 농의와 항일단결을 호소하였다. 이후 1925년 7월에 등영초가 천진에서 활동하다 강광동의 양광구위원과 부녀부장이 되었고 광주에서 주은래와 결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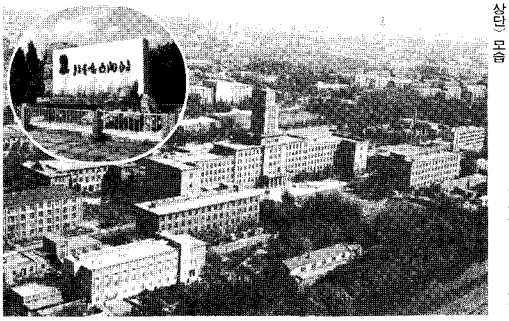
본관 앞에는 주은래 석상이 있는데, 건교 7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약력과 활동을 간단히 적어 건립하였다(1989.10). 검은 대리석 위에 흰돌로 만든 석상은 왼손을 허리에 올리고 오른손은 가볍게 쥐고 앞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고 암시하는 듯한데 모택동 동상이 섰거된 자리에 세워진 것이라 한다. 그리고 연못이 많은 호수가 운데에는 건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생을 비롯하여 모두의 힘을 모아 건립한 주은래 기념비가 있다(1979.10). 사각 아전(華蛾傳)' '노천금덕전(老千金全德)' '일념자(一念差)'등을 연출하였다. 특히 주은래는 '일원전'에서 여주인공인 손혜연(孫惠娟)으로 분장하여 대단한 연기력을 발휘하였다.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이론과 연극구성 및 무대장치로 극을 적절무대예술로 형상화시켜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이론과 연극을 하여 이후 호적등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제2실은 일본 유학시대(1917.9—1914.4)로 하상조(河上肇)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연설과 집회를 주도한 내용이 있다. 제3실은 5·4시기(1919.5—1920.7)로 남개대학 문과에 1회 62번으로 입학한 것등의 내용이다. 천진에서 애국학생운동과 반제반봉건운동등을 전개하면서 '革心·革新'을 기치로 내건 '천진학생연합회(天津學生聯合會報)'의 맹간과 '각오사(覺悟社)'를 결성하여 '각오(覺悟)' 의 주편을 맡으면서 '경청구류기(警廳拘留記)' '경청일록(檢廳日錄)'등을 발표하였다.

제4실에서는 유럽에 머문시기(1920.11—1924.7)의 활동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은 주은래가 1920년 7월에 프랑스로 가서 1924년까지 머물렀다. 천진의 '익세보(益世報)'특파원으로 활약하면서 방구통신(放歐通信)으로 영국의 탄광 노동자의 파업과 북양정부가 독일로부터 차관하는데 대한 부당성, 영국의 경제조사와 공인운동의 고찰등을 알렸으며, 독일에서는 구주공산주의 운동의 상황 등을 중국에 소개하였다. 그리고 소년중국공산당을 조직하여 '소년(少年)'(후에 '적광(赤光)')을 편집하여 10월 혁명과 공산주의 전파와 군벌 통치 및 열강들의 침략을 보도하였고, 공산당 파리통신처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광주·심북·무한·중경에서의 간고한 세월 속에서 천하대세의 농의와 항일단결을 호소하였다. 이후 1925년 7월에 등영초가 천진에서 활동하다 강광동의 양광구위원과 부녀부장이 되었고 광주에서 주은래와 결혼하였다.

본관 앞에는 주은래 석상이 있는데, 건교 7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약력과 활동을 간단히 적어 건립하였다(1989.10). 검은 대리석 위에 흰돌로 만든 석상은 왼손을 허리에 올리고 오른손은 가볍게 쥐고 앞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고 암시하는 듯한데 모택동 동상이 섰거된 자리에 세워진 것이라 한다. 그리고 연못이 많은 호수가 운데에는 건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생을 비롯하여 모두의 힘을 모아 건립한 주은래 기념비가 있다(1979.10). 사각



◇사진은 중국 천진 남개대학과 주은래 기념비 좌측 상단) 모습

공공의식 강조한 품덕교육, 남개정신 제일선
주은래 업적기려 학내 기념관, 석상 설치키도

Ⅲ. 맺음말

남개학교는 제로배·이석중·오왕장·양계초·진독수 등 당시의 지식인들을 강연에 초청하여 당시 국내외의 형세를 알리고 학생들에게 애국·공공정신·사회 봉사에 필요한 품덕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모든 일이 변할 수 있더라도 남개정신만은 변하지 말며, 오로지 공공정신으로 진력하라는 교육과 함께 명예를 제2생명으로 삼게되었다. 주은래는 문학·연극·조직활동 등의 기초지식 습득과 청년시절을 이러한 학습 분위기에서 보냈다.

그리고 상중상은 중국의 장래가 인재 양성에 있음을 인지하여 곤경에 처한 주은래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구미로 파견하여 새로운 사상학습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주은래는 공산당 입당과 함께 혁명사업에 정진함으로 인해 스승과 40여년 동안의 교류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남개와 천진에서의 활동은 모두 상충상의 교육철학과 합치하였다.

주은래는 총리가 된 후 3차에 걸쳐 남개대학을 방문하였는데, 특히 크나큰 이념적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충장의 교육적 배려와 지시 추구 능력의 배양과 교육을 해준 남개대학에 항상 감사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창립과 함께 서기·정치부 주임·국무원 총리 겸 외교부장·정치국 상임위원 등을 거친 주은래는 공산당 정권의 성립과 함께 중국의 내정 및 외교정책을 지도하여 중국근대 정치·외교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모택동의 정치, 등소평이 경제로 표현된다면 주은래는 외교와 행정으로 많은 인민의 추앙을 받고 있다.

오일환
(본교대학원 박사과정·동양사)

강단시론

김 신 규
(약대교수·약학)

교수가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을 그저 살아주는 무리와 사는 무리로 구분한다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조용히 자문도 할 때가 가끔 있다. 세상에서 잘사는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다른 데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참으로 잘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하나 내 눈에는 잘사는 것 같지 않다. 속에는 몹쓸 병이든 환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잘산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자기의 현재의 위치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할지? 소유욕을 버리고 자기 몸가짐 관리 잘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면 마음의 천국이요 이런 유형이 잘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나도 한번 잘살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현실속에서는 갈등도 많이 느끼며 때로는 가르치는 직업을 원망할 때도 있다. 젊은이들은 구별없이 새로운 서구문명을(?) 갈망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간은 한물간 구세대가 살아가며 가르치기란 참으로 어려운 때도 많다. 요즘 갖은 자기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회속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며 살고 있다. 날과 책으로만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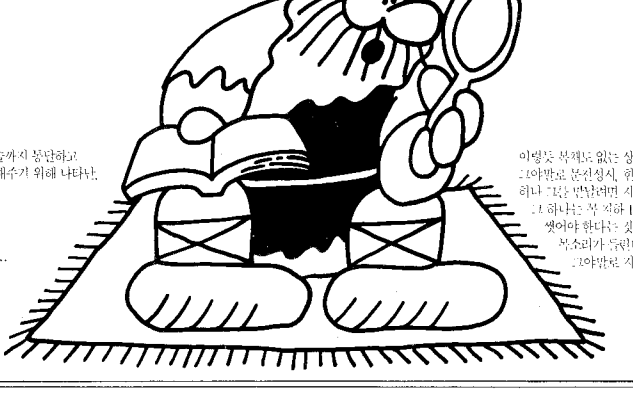
요즘 대학가의 게시판과 건물벽면과 들담에는 많은 게시물이 더덕더덕 부착되고 있다. 내용인즉 모두 자기들의 주장으로 일관된 것이다. 그러한 주장이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이전에 학생들이 그 많은 시간을 학구에 전념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시위와 게시문화 쪽으로 낭비하여야 할 주위 분위기가 문제이며, 그러고도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더 큰 문제라면 필자와 망상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쉬며, 자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나 아닌 이웃나라 젊은이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능력과 힘 없는 국민으로 전락되어 강대국의 물질 팔매 시장을 자초할 것인가? 얼핏 하면 민주화라고 외쳐댄다. 여태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화인지 도무지 알수없는 세상속에서 고민하게 된다. 왼쪽 부명바지 저고리 입고,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며 밟음 추는 것이 민주화인가? 욕구불만을 집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돌리적인 수단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화인가? 총장선출도 그렇다. 엄연한 법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법대로 선출 집행하면 독재이고 법을 두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광행이 민주화인가? 11월 3일 교수회의 뒷자리에 앉아서 착잡한 심정으로 관망하였다.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것을 놓고, 시간을 낭비할 때인가? 또 그와 같은 방법을 교수들이 논의할 사항인가? 법 이전에 관행이 통하는 세상이 위망스럽고,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이 그립다. 지금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면서까지 관행으로 치닫고 있는 처사에 대하여 바르게 지도하여 줄 능력 있는 선생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고민하여 본다.

쟁이란 쟁이책로 계속하여 쳐야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학생과 교수간의 상관관계라면 어떠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사랑의 매가 너무 없었기에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이 되서 않았나 하는 자책도 하여본다. 세상은 밖에서부터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 인격과 적응을 중요시하고 요구하는 세상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 같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기성세대가 문제이며 죄를 짓는나는 것? 빈도서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야만 죄인이 아님을 아는 세상이 그립다. 시기와 질투로 죄요 탐욕도 죄가 된다고 성서에는 말하고 있다. 학생들이 공업에만 전념 못하는 것도 사려 깊지 못한 이 있겠으나 자질 향상을 곳의 책임은 대학당국과, 교수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교수와 학생은 물과 고기와 같다. 흐린 물에 고기가 살 수 없고 먹이 없는 물속에서도 고기는 굶어죽고 만다.

교수 자신들의 좌표도 이제는 읽으며 재정립할 때가 아닌가 한다. 대학의 한번 밥을 들여 놓으면 65세까지 보장되는 제도가 오늘과 같은 대학의 현실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본다. 교수도 거듭나야겠고 대학도 큰 개혁이 일어나서야 대학이 발전할 것이며 사절이 보자라는 교수의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을 쓸아내지 않고, 입학은 어려우나 졸업은 쉬운 대학 정도가 개선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현실이 오래 지속된다면 대학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卜債無料, 캠퍼스 고민상담"

HITE의 참맛을 아는 분에 한하여 무료로 봐드립니다.



대학가에 가이한 도사 등장! 취부갈, 주역은 물론 서양의 점성술까지 통달하고 소백산맥 지하 150m에서 득도한 후 우리 대학인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나타난 그 이름하여 해사도사!

"그가 상담한 예를 보면

Q : 점점 멀어져 가는 그녀, 붙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해가 : 떠나는 여자와 머스는 뒤쫓지 말라! 곧 또 오는 법이니…

Q : 대학원을 가자니 사랑이 우는데, 취직을 해야 할까요?
해가 : 사랑은 달콤하나 빵과 함께 먹어야 하느니라…

Q : 이상하게 학점이 안나오는데 어찌 해야 하올런지요?
해가 : 정학금은 받아본 적이 없는 자보다 주역이 없는 자가 더 불쌍한 법이니라…

이렇듯 부채도 없는 상담에 명쾌한 해답만 주니 어찌 인기가 없겠는가?
그야말로 본전심시, 한마디로 막더 진다는데…
하나 그는 만날려면 지켜야 할 두가지 조건이 있다며,
그 하나는 꼭 지하 150m의 암반천연수로 만든 하이트란 맥주로 속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둘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라.
그야말로 지혜가 있는 자만이 알아듣으리라…

지하 150m의 100% 암반천연수로 만든—

하이트 맥주